

No.35

Japan Weekly Digest

2010. 5. 17 ~ 5. 23

□ 금주의 이슈

- 도요타, 렉서스 핸들문제로 다시 리콜
- IMF, 일본채무 GDP 250%재정난 개선 요구
- 일본반도체 30社, 초소형반도체시스템 공동개발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하토야마 내각, 구제역 대책본부 설치
- 민주당, 기획위원회에서 국채발행 44.3조엔 이하로
- 국토교통성, 해외인프라 수주목표 10조엔 설정
- 일본은행,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초저금리로 민간은행 지원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경산성, 성장전략 『산업구조비전』 발표
- 경산성, 콘텐츠산업 육성전략 발표 고용 5만명
- 태양전지시장, 2.6배 확대 세계3위 시장으로 성장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일본의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변천과 시장동향,
전력중앙연구소 (2010.5)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,
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도요타, 렉서스 핸들문제로 다시 리콜 실시

- 도요타는 19일, 고급 차종인 「렉서스」 4개 차종에 대해 핸들 결함으로 국내와 해외 판매분을 합해 약 1만 2000대를 리콜 한다고 발표
- 핸들조작을 전자 제어하는 기어가변스티어링 시스템(VGRS) 장치불량으로 핸들과 타이어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음
- 이런 문제 제기는 올해 3월 이후 일본에서 12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고, 도요타는 4월 말부터 리콜 여부를 검토해 왔다고 함

○ IMF, 일본채무 GDP 250% 재정난 개선 요구

- IMF는 19일, 일본의 국가 채무가 2015년에 국내총생산(GDP)의 250%로 증가할 것이라며 2011년도부터 재정재건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세를 5%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
- IMF는 일본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218%에 달한데 이어 올 연말에는 227%, 내년 말에는 235%, 2015년에는 250%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

○ 일본반도체 30社, 초소형 반도체시스템 공동 개발

- 일본경제신문은 19일, 히타치, 도시바, 산요 등 일본중견 반도체기업 30사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소량으로 생산하는데 적합한 초소형생산시스템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고 보도
- 지름 200~300mm의 실리콘웨이퍼 대신 12.7mm의 극소형 웨이퍼를 사용하는 초소형 생산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는 2014년 일본 반도체업체들의 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
- 보통 1개의 반도체칩 생산라인을 만들기 위해선 약 500억엔이 소요. 일본산업기술종합연구소(AIST)가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초소형 생산라인의 비용은 100분의 1에 불과한 5억엔으로 설치 가능
- * 초소형 생산시스템 개발에는 히타치, 도시바, 산요, 무라타 제작소 등 일본의 30개 반도체 생산업체가 참여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○ 하토야마 내각, 구제역 대책본부 설치

- 하토야마 내각은 17일, 미야자키 현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(구제역)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하토야마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대책본부를 발족. 미야자키 현청에 현지 대책본부도 설치
- 하토야마 총리는 「구제역 확대가 우려되며 대단히 중대한 과제다.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대응, 한시라도 빨리 미야자키 현 주민을 안심시켜야 한다」고 언급
- 이동차량과 도로의 철저한 소독, 자위대 파견·증원, 가축 살 처분 등,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나 이동이 제한되는 농가에 대한 생활지원이나 경영 재건 대책을 지시

○ 민주당, 기획위원회에서 국채발행 44.3조엔 이하로 낮추기로

- 민주당은 16일, 참의원 선거용 매니페스토 수립을 위한 기획위원회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1년도 신규 국채발행을 당초 예산 44.3조엔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세출 삭감안에 대해 의견 교환
- 회의에는 간 재무장관, 센고쿠 국가전략상, 오카다 외무장관, 나오히사 경산상 등 참석

○ 국토교통성, 해외인프라 수주목표 10조엔 설정

- 국토교통성 성장전략회의는 17일, 항공, 관광 등 5분야의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발표
-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관련 산업의 수주를 10년 이내에 10조엔 이상 수주하겠다는 목표 설정
- 기업이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Top세일즈방식을 도입하고, 현지 대사관 등을 활용하는 지원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전략

○ 일본은행,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초저금리(연 0.1%)로 민간은행 지원

- 일본은행은 경제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환경, 에너지, 첨단연구개발 관련 기업들에게 연 0.1%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하겠다고 발표
- 디플레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요하고,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에 민간은행이 융자하기 쉬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

○ 경산성, 신성장전략『산업구조비전』 발표

- 경제산업성은 일본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국내산업을 재생시키기 위한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「산업구조비전」을 발표
- 하토야마 내각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국제적인 수준까지 인하할 필요성을 정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발표 예정
- 기업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산업재편을 촉진시키기 위해 재취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거나 우호적 M&A의 절차 간소화 방안도 제시
 - ▶ 법인세 실효세율(40.7%)을 국제적 수준(25-30%)으로 인하
 - ▶ 기업과 OB기술자, 대학을 연결시켜 주는 “기술 전승학교” 설립 등

○ 경산성, 콘텐츠산업 육성전략 발표 고용 5만명

- 경제산업성은 국제적으로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, 만화 등 콘텐츠산업 발전을 통해 2020년까지 5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시키겠다는 성장전략을 발표
- 인터넷 활용으로 해외시장에서도 일본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고, 산업규모를 현재의 15조엔에서 20조엔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
- 전략에는 CG영상이나 3D애니메이션에 관한 전문기술자 등 인재육성이나 일본기업의 약점인 아시아 등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
 - * 해외매출을 2032년까지 자동차나 반도체산업 등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

○ 태양전지시장, 작년대비 2.6배 확대 세계3위 시장으로

- 태양광발전협회는 18일, 2009년도 태양전지의 국내출하가 발전능력을 기준으로 62만KW가 되어 전년대비 2.6배로 확대되었다고 발표
- 정부의 보조 정책에 힘입어 주택용이 많이 보급되었고, 시장규모는 독일,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위(08년 6위)로 성장
 - * 국내출하량의 87%가 주택용이 차지
- 샤프(Sharp)도 09년도 결산에서 태양전지부문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국내시장이 확대되어 관련기업의 실적이 개선됨

‘일본의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변천과 시장동향’
전력중앙연구소(2010.5)

○ 배경 및 목적

- 일본은 1970년대부터 민관이 전기자동차(EV) 개발·보급을 위해 대응해왔으나 거의 보급되지 않은 상황
- 그러나 09년도부터는 양산형 EV가 잇따라 판매되었고, ‘09.5월 발표된 “차세대 자동차 환경보급 전략”에서 2020년까지 200만대의 보급목표가 제시되는 등 향후 EV의 본격적인 보급이 기대

○ 일본 EV 정책과 성과

1. 제1세대(1977~1991) 목표: 20만대 → 성과: 2000대 정도
 - 제1세대 EV의 도입목적은 주로 공해대책이었으나 차량의 안정성·주행성 문제 등 기술적 문제로 공적기관이나 전력회사로 보급이 한정
 - ▶ 보급정책은 차량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의 보조·세제우대 등 재정적 지원과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검증하는 실증실험단계
 2. 제2세대(2001) 목표: 설정하지 않음 → 성과: 10,000대 정도
 - 제2세대 EV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고, 재정지원과 실증실험을 통해 사업화를 위한 모델사업 정책이 추진
 - 전지의 기술혁신에 의해 차량 성능은 향상되었고 업무용, 공용과 더불어 가정용도 도입 모색
 - ▶ 충전할 때마다 주행거리나 가격 등의 문제로 렌터카 등 근거리 이동에 한정되었고 공유화에 의한 비용경감이 모색되었으나 사업화에는 실패
 3. 제3세대(2007~2020) 목표: 200만대 → ?
 - 양산형 EV로 주로 법인에 판매되었고 용도는 업무용과 공용이 중심
 - ▶ 주된 보급정책은 ①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보급정책 실시 ②민간 기업에 의한 충전인프라 정비 ③ 민관연계에 의한 지역보급 추진조직의 설립 등 다양한 대응이 전개
- 향후의 보급정책과 시사점
- 향후,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대응한 대책 필요성과 이용환경의 정비 그리고 지역에 있는 보급 추진 조직의 적극 전개가 중요함

【일본 관련 주요 보고서】

【파트너를 찾습니다】

□ 『3월 기계수주 통계』 내각부, 5월17일

- 3월 기계수주통계에서 민간수요가 3개월 만에 증가되었음. 3월은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·전력을 제외한 민수의 수주액은 전월 대비 5.4%증가한 7,329억 엔으로 3개월 만에 증가되었음

<http://www.esri.cao.go.jp/jp/stat/juchu/1003juchu-1.pdf>(출처)

□ 『물은 산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인가』도 레이경영연구소, 5월18일

- 물 관련 소재·기기분야의 일본 업체는 세계에서 경쟁력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계속 비용 삭감과 저가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. 또, 물 시장의 90%를 차지하는 수도 사업에 어떠한 형태로든 진출해야 하고 신흥국 기업과의 제휴가 열쇠

http://www.tbr.co.jp/pdf/report/mon_g001.pdf(출처)

□ 『일본이 리드하는 스마트그리드의 미래를 위해』 미즈호정보종합연구소, 5월19일

- ICT(정보통신기술)을 이용하여 전력의 수급조정을 자동제어 하는 스마트그리드 경쟁이 세계 각국에서 가속화. 주도권 다툼을 좌우하는 것은 국내 5,000만 가구에 대한 보급이라 할 수 있음. 소비자가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발이 중요

<http://www.mizuho-ir.co.jp/publication/column/social/2010/0518.html>(출처)

【금주의 일정】

일자	주요 일정
5/17(월)	○ 3월 기계수주 발표(내각부) ○ 4월 기업물가지수 발표(일본은행)
5/18(화)	○ 행정쇄신회의 개최 ○ 4월 소비자동향조사 발표(내각부) ○ 3월 제3차 산업활동지수(경산성) ○ 4월 전국백화점 매출 발표(백화점협회)
5/19(수)	○ 3월 광공업생산지수 발표(경산성)
5/20(목)	○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(21일까지) ○ 1~3월기 GDP속보치 발표(내각부)
5/21(금)	(석가탄신일) ○ 시라가와 일본은행총재 기자회견

* 5월 23일 한중일 통상장관회의(서울) 나오시마 경산상 참석 추진

선박(어선)용 엔진절감장치 판매대리점 모집

- 의뢰기업명 : S기업(상세 기업명 개별공개 예정)
- 일본 S기업(상사)에서 어선용 연료절감장치(메이커:니혼테크노)를 한국내에서 선주(船主)를 대상으로 판매해줄 대리점을 찾고 있습니다.

초소형 프레이즈반(밀링머신) 판매 / 부품조달

- 의뢰기업명 : 에노모토 공업
- 일본의 에노모토 공업으로부터 초소형 프레이즈반 한국 판매 및 해당 부품의 (한국으로부터의) 조달에 대한 의뢰가 있었습니다.

스텐레스단조 부품(반도체제조장치용 밸브) 조달

- 의뢰기업명 : U공업 (기업명 추후 공개)
- 일본에서 한국의 스텐레스단조메이커를 찾고 있습니다.
- 용도 : 반도체제조장치에 사용되는 밸브부품
- 향후일정 : 추후 도면제공, 공장견학 예정

특허리포트 판매 희망

- 의뢰기업명 : 네오테크놀러지
- 일본기업 네오테크놀러지(www.neotechnology.co.jp)에서 한국 출판사 또는 기업(전자분야)을 대상으로 특허 리포트 판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

다중접합기술, DB기술 제공 희망

- 의뢰기업명 : S기업(상세 기업명 개별공개 예정)
- 일본의 S기업으로부터 '다중복합기술'과 'DB기술'을 제공(판매)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.

* 관심있으신 회원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 비즈니스협력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 : 전재용 선임연구원

Tel : 02-3014-9845 / jyjun@kjc.or.kr

